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광주의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략적 미래산업 설계 필요”

●강기정 광주시장 주제발표

AI·미래차산업 창업·실증도시 정책 소개
AI 결합 'AI×문화중심도시' 청사진 제시
“산업·교육 지역 와서 메커니즘 구축돼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광주만의 전략적 미래산업 설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지역경제 세션 발표에서 “저출생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설계, 지역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 지역경제 세션은 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장이다.
강 시장은 먼저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도시로 이름이 높지만 산업

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한 도시”라며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산업(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에는 공산업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개 완성차 공장 보유 도시, 광산업 도시, AI 중심 도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 시장은 또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질병”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사관학교, GCC(광주실감콘텐츠허브) 사관학교와 같은 광주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AI와 미래차, 창업과 실증 정책 등을 역설했다.
강 시장은 또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AI를 리딩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 청사진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다”며 “ACC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AI×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과 시·도지사 주제 발표, 언론 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기조세션 ▲세션I(인구감소 대응) ▲세션II(지역경제) ▲세션III(제도개선)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콘퍼런스에는 13개 시·도지사가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시·도연구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는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26일 오후 3시10분부터 50분간 KBS1에서 방영된다. /박성진기자

“실질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김영록전남지사 주제발표

독일·프랑스 사례 소개 자치입법권 등 자율성 강조
지역민 이익 대변 상원 신설 지자체 기능 역할 보장
“전남특별자치도 설치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할 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내 놓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1970년대 331만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원 중 32조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토론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김 지사는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 독일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개했다. 독일은 주총리, 주장관 등 지방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방상원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에서 제안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며 지방의 이익과 맞지 않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공동체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

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프랑스와 같이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을 구성하고 이들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게 한다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 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남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산수다발 III (landscape bouquet III)
73x53cm,
미표백 장지에 채색
(Color on unbleached paper),
2022



산수다발 V (landscape bouquet V)
73x53cm,
미표백 장지에 채색
(Color on unbleached paper),
2022



산수다발 IV (landscape bouquet IV)
73x53cm,
미표백 장지에 채색
(Color on unbleached paper),
2022



황산운해도(黃山雲海圖) I | 159x28cm | 미표백 장지에 채색, 방해말 | 2023

나는 집안의 모든 사물을 산수와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존재 가치를 되돌아보며, 이들 창작의 밑거름으로 살아 생할 속 사물들과 산수를 결합하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 고뇌와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반영하며,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내 내면세계를 표현했다.

나는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청록산수를 일상적인 사물에 결합하는 시도를 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산수다발) 시리즈는 꽃다발과 산수화를 결합한 작업으로, 기념일이나 축하 자리에서 받는 꽃다발의 행복한 순간을 작품에 담아냈다. 또한, 금전수와 같은 화본에서 영감을 받아 일상적 사물에 담긴 의미를 작품에 반영했다. 나의 작품은 산수와 꽃다발, 화본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관람객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 정연 작가

개 인 전 4회

레지던시프로그래 2024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청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작품소장 광주광역시북구청

단 체 전 38회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